

Ford, 밴 승용차에 한국타이어 장착

한해 38만본씩 5년간 수출계약 ... 해외 브랜드 인지도 제고 기대

한국타이어가 미국 포드자동차에 대중적인 밴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한국타이어(대표 조충환)는 미국 포드자동차의 대표적 밴용 차량인 <Econoline E-350>에 한해 38만개의 타이어를 공급키로 하고 1월14일 미국 현지 포드자동차 공장에서 한국타이어를 장착한 Econoline의 첫 출고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포드 Econoline은 1961년 생산 이래 연평균 100만대 이상 팔리는 미국의 대중적인 밴용 차량이다.

한국타이어가 공급할 물량은 한해 38만본 규모로, 앞으로 5년 동안 자사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직접수출 방식으로 납품하게 된다.



공급될 타이어는 한국타이어의 대표적 밴용 제품인 <RH03>의 245/75R 16 규격으로 수출액은 교체용 타이어까지 포함해 5년간 총 9000만달러에 이른다.

조충환 한국타이어 사장은 “포드자동차 공급은 수출증대는 물론 한국타이어의 기술력을 자동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해외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03년부터 포드의 대표적 픽업트럭인 <F-150>에도 55만개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밴용 제품을 포함해 2004년 포드자동차에 공급하는 물량이 총 178만개, 한해 4300만달러에 달한다.

2004년에는 포드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완성차인 볼보, 오펠, 다이하츠, 미쓰비시, 폭스바겐 등에도 6500만달러의 타이어를 납품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일본의 도요타 등 다른 해외 유명자동차에도 OE(교체용이 아닌 완성차 생산기업에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14>